

【계속은 힘이다】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 한국 울산 광역시에서 개최된 「제19회 한중일 3개국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전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출석해, 작년 오카야마시 개최 협력에 관한 감사를 전함과 동시에 각국 도시의 활동과 생각에 관해서 접하였습니다.

아침 6시경에 출발하여 다음날 저녁 늦게 돌아오는 힘든 일정중에서도 많은 분들과 교류를 나누는 유익한 2일간이 되었습니다. 회의 내용도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인상에 남은 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님이 꼭 저와 만나고 싶다고 멀리서 남부지역인 울산광역시까지 와 주셨습니다.

도봉구에서는 ESD와 문화 예술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꼭 오카야마시와의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는 열의를 전해왔습니다.

국제과 한국과의 창구역할을 하는 직원에 의하면 이같이 오카야마시와의 교류를 희망하는 곳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3년전의 「ESD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치밀하고 착실하게 정보발신을 한 결과 오카야마시가 조금씩 세계로부터 주목받게 되었음을 실감하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별 보좌관의 기조강연 발표입니다.

문정인씨는 회의 당일에도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근거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 개국이 상호 패권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 정부간의 교류가 국가간의 관계를 깊이하는 열쇠가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문정인씨의 의견에 강한 동감을 함과 동시에 회의를 통해서 각국 도시의 노력을 알았고 더욱 교류의 촉진을 향해 마음을 강하게 다지는 바입니다.

계속은 힘이다. 우리들이 추진하는 시민 레벨의 교류가 나라를 넘어서 평화와 안정을 이어간다는 것을 믿고 이후도 결실있는 교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